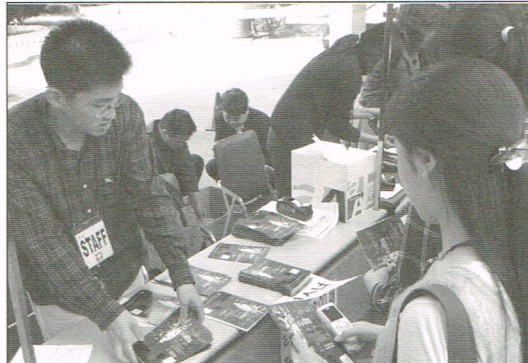


지난 주일 오늘 4부 전도예배, 이루마 공연에 2000여명 참석해 참석한 청소년, 청년들에게 음악을 통한 복음 전도 비전 심어줘



지난 주일 오늘 4부 전도예배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이루마를 초청해 공연과 간증의 기회를 가졌다. 우리교회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000여명되는데 더 많은 숫자가 몰려와 큰 혼잡을 빚진 않을까 4부 전도예배 사역팀에서는 크게 맘을 조리고 만반에 준비를 다했다.

그러나 선착순과 지정좌석 제도를 실시한 결과 2000명만 입장이 이루어지고 일부는 표를 구하지 못해 돌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이루마는 이번 공연에서 여러 유명한 피아노곡들을 연주하면서 음악에 관한 그리고 음악을 통한 비전

과 포부들을 함께 참석한 성도 및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과 웃으면서 편안하게 나누었다.

중간에는 문동학 담임목사의 짧은 복음 스피치와 간증도 있었다. 이루마는 '주님의 뜻을 이루라'는 순우리말로 그의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준 바렘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길 4부 전도예배 공연 중 고백했다.

그가 이번 4부예배 오늘을 통해 전해준 주옥같은 피아노 연주와 간증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었다.

번식교회 이름

“길가에교회(Gilgaeh Church)” 로



남양주시에서 목회하고 있는 한 목사님께서 전하는 말씀에 의하면, 지금 그곳의 작은 교회들은 잔뜩 긴장을 하고 있다합니다. 대형 교회들이 그들의 이름을 뒤에 붙여 “남양주OOO교회”라 하며, 애써 길러놓은 교인들을 흡수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주님의교회까지 가세한다니 그들의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 우리는 “남양주 주님의교회”라는 이름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어 그들도 행복해지도록 기도하며 애쓰려합니다. 우리 때문에 그들도 부흥하는 일은 결코 세상 물질 모르는 허황된 꿈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들의 감정을 돌리기까지는 시간을 필요로 하겠지만요.

“길가에교회”로 이름붙임에 부쳐

“길(the way)”은 예수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의 곁에서 그를 바라보며 그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어울림).

“길(a way)”은 이웃의 아픔과 기쁨이 서려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만의 천국”이 아니라 “그들” 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남아 우리 때문에 그들도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이웃과 어울림).

“길”은 목적지로 향합니다.

우리는 길을 묻는 이들을 위해 길가에 서있는 친절함 안내표지판을 이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그런 안내자, 곧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또한 길가에 서있는 가로수처럼 지치고 목마른 나그네들의 쉼터가 되고 싶습니다.

“길”은 이미 이론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려져있습니다. 길이 있는 곳이면 언제나 길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가를 따라 역동적으로 주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3면에서 계속)

복지 선교부,

작은 샘골 공동체에서

보내온 편지

저희 작은 샘골 공동체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는 민간 복지 시설로 노인, 장애인, 결혼 가정 청소년 등 180여명의 많은 가족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지시설 공동체입니다.

이번에 주님의교회에서 보내주신 많은 양의 옷들은 저희 가족에게 너무 귀하게 입혀질 아름다운 옷들이 됩니다. 귀하신 성도님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모아 귀하게 보내주신 아름다운 선물은 오래도록 저희 가족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귀하신 주님의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저희 공동체 가족들은 더욱 더 힘을 얻어 믿음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름다운 주님의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05년 9월 29일, 작은 샘골 공동체
온 가족들 드림

안수집사회 모임 가져

지난 주일(9일) 40여명의 안수집사들이 부부 함께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을 통해 안수집사의 사명과 사역에 대한 의견들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직분을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부끄럼 없이 잘 감당하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뜻 있는 자리였다. 모처럼 부부

가 함께 모여 서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귀한 모임이 앞으로 계속 정례화 되어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더욱더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여 교회에서 진행되고 계획되는 모든 사역과 일을 잘 감당하고 성도 간에 모범을 보이며 술선수범하는 모습을 갖는 안수집사들

이 되자고 다짐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종의 모습으로 교회사역에 더욱 더 힘써 기여하고 교회가 더욱 더 든든히 성장하고 번식할 수 있도록 힘쓰는 일꾼들이 되자고 다짐했다.

오래 만에 깊은 교제 속에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서로 나누며 준비된 만찬을 함께 나누며 즐거운 교제와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되었다.

밥퍼는 새벽!



청년 새벽 부흥의 불길에 기름을 끼얹은 사건!!! 매일 아침 밥을 손수 지어 공급하시는 한익명성을

요구하시는 성도님의 헌신과 결단. 새벽부흥청년이 300명 되기까지 섬기시겠다고 우리보다 앞서 달리는 열정에 오늘도 청년들의 아침은 든든하고 행복하다. 밥퍼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뒷정리와 청소와 설거지도 때론 함께 도우며 영적으로나 현모양처로나 좋은 남편으로나 훈련되어가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청년부를 가졌다고 하면 지나친 표현일까? 새벽마다 당번을 정해 식사에 필요한 비품들과 손수 지어오신 밥과 국과 반찬그릇, 수저통, 찜밥통, 식판들까지 중장당 입구로 나르는 손길들이 분주하다. 감

사한 것은 그러한 섬김을 감당하면서도 식사준비를 마치면 다시 예배실로 들어와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청년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다. 몸살 기운이 있던 밥짓는 집사님 뒤통수 무릎꿇고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한번에 회복되었다고 다시 펄펄 날아다니는 모습도 감동이다. 이렇게 청년새벽부흥은 날마다 감동의 연속이다. 마지막까지 남아 밀걸레질로 바닥을 훑치고 의자들을 정리하고 책상을 닦는 손길들도 전부 은혜 받은 이의 확실한 모습이다.

은혜가 내 속에 머무르지 않고 영혼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구체적 실천으로 나타날 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새벽부흥은 섬김의 부흥이며 기도의 부흥이다. 그리고 육체의 부흥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밥퍼는 새벽은 행복하다!



구역 모임 탐방,

말씀을 거울 삼아 삶을 깊이 비추는 구역



5교구 11구역은 여성구역으로 하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한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구역이다.

10월 7일 금요일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했음을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구역예배를 시작했다. 5교구 11 구역에서는 IVP '말씀과 삶' 성경공부 중 '그리스

도인의 온전함'을 구역교재로 선정했다.

2학기 구역예배는 구역에 적당한 교재를 구역에서 선정하는 체제로 바뀌어서 첫번째 구역예배 시간에는 새로운 교재에 적응이 되지않아 다소 어수선했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자리를 잡아 활발하게 구역 모임 속에서 귀한 나눔들을 나누고 있다.

이번주 주제는 '인내심 키우기 (욥1:1~2:10)'라는 단원이었다. 하나님의 주장을 증명하시기위해 욥에게 닥치는 고통을 보면

서 고통에 대응하는 욥의 태도에 대해 진지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에게 닥친 고통만으로도 힘이 드는데 가족이나 친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시험거리를 제공하여 더 큰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는 서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말씀에 공감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얻게되는 유익은 무엇이며, 또 그 유익이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인지에 관해 서로 삶을 나누면서

자신들의 약한 믿음에 안타까워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고 중보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다. 주님의교회와 번식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구역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시간을 갖는 가운데 구역 모임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6기 중보기도세미나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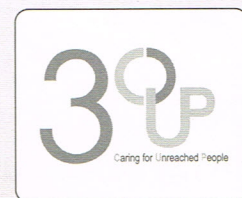
중보기도사역팀에서는 10월 27일(목)과 29일(토)에 6기 중보기도세미나를 엽니다. 이 세미나는 중보기도에 대해 관심이 있는 성도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중보기도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갖도록 하고, 중보기도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강의와 실습이 이루어집니다. 27일(목)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29일(토)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층 3집회실에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구역모임에 지장이 없도록 금요일 저녁에는 모임이 없습니다. 강의내용은 중보기도사역, 중보기도의 특권과 의무, 중보기도의 승리의 모본, 교회적 중보기도의 중요성, 응답받는 기도의 태도, 병든 자를 위한 기도,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기도 등입니다. 이 세미나를 수료한 후에, 중보기도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1층 안내데스크에서 받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예배,

30CUP WORSHIP SERVICE

오늘 오후 4시 대예배실에서 있어



횃수를 거둬들일수록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감격하게 된다. 예배를 통해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는 하나님의 섬세함이다. 예배에 참석한 모두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결단하게 된다.

오늘 오후 4시 7번째 30CUP WORSHIP SERVICE가 드려진다. 예배 중에 이숙 성도(8교구)의 간증과 김현령 목사의 설교, "꼭 필요한 한 가지" (시23편)가 있다. 30대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새/벽/부/흥

새벽을 깨우는 청년들의 행복



청년새벽부흥기도가 40일을 넘어섰다. 참석인원도 70여명의 고정인원이 정착되었으며 연말까지 100명이 넘기를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는 청년들이 많아진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기도하는 습관들이 자리잡아간다는 측면에서 감사할 따름이다. 인생의 기초 체력, 영성의 기초 체력 모든 것은 성실함에 그 기본이 있다. 성실한 훈련과 반복적이고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 인생의 튼튼한 기초를 놓는 유일한 방법이다.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장기전도 할 수 있는 법. 영성의 기초를 새벽의 꾸준함으로 쌓아가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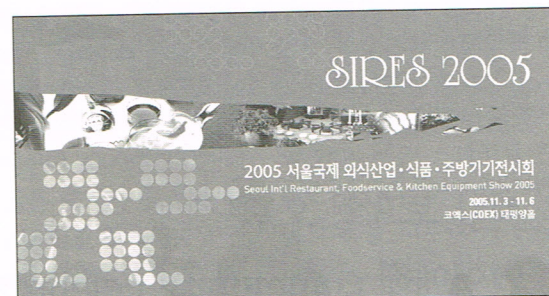
니다. 이제 40일을 넘어 100일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도전은 우리 인생의 내적 견고함의 정도를 측량할 수 없을 만치 준비시켜 줄 것을 확신한다.

새벽의 은혜도 점점 깊어가고 새벽청년들의 기도도 점점 깊어간다. 참으로 놀라운 시간이다. 새벽의 은혜는 새벽을 깨우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으며 새벽을 깨워보지 않은 사람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는 아쉬움이 있다. 역사의 개척자들도 새벽을 여는 사람들로 명명되어진다. 어느 누구든 한발 먼저 가는 이는 있게 마련이다. 새벽을 깨우기 위해 교회로 오는 길에 벌써 출근하는 사람과 등교하는 학생들도 있다. 인생의 시간을 하루에 두 시간만 남들보다 일찍 그리고 길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평생을 두고 얼마나 긴 시간을 더 살아가갈 수 있는 것일까?

새벽의 도전을 포기할 수 없다. 새벽의 도전은 인생 도전의 확고한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새벽마다 나는 청년들 한명만명을 위해 손없고 축복한다. 그리고 때론 기도 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아침밥을 함께 퍼며, 밥퍼는 목사로서 행복한 사역을 감당한다. 기꺼이 매일 아침을 놀라운 식사 메뉴로 우리를 놀래키는 집사님의 헌신적인 손길과 밥퍼고 반찬퍼고 국퍼는 장로님과 부장 집사님과 청년 섬기미들의 손길로 행복이 넘쳐난다. 우리의 새벽은 참 행복하다.

SIRES 2005 열려

05년 서울국제외식산업·식품·주방기기전시회가 11월 3일(목)부터 11월 6일(주일)까지 4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삼성동 코엑스 1층 태평양홀에서 개최된다. 본 행사기간 동안 전시되는 품목은 국제적인 레스토랑, 농·축·수산 식자재, 주방기기, 먹거리 시식, 관련 서적 등 다양하며, 행사기간 4일간 외식산업 발전과 프랜차이즈 기업 성공사례, 급식산업 발전 방안, 와인 세미나 컨설팅을 위해 국내의 유명 강사를 모시고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다. 또한 매일 각종 이벤트와 경품 추첨 행사로 공기 청정기, 해외·국외 여행권, 식자재, 호텔 및 레스토랑 시식권, 가전제품, 화장품, 기능성 식품 등 다양한 식품을 참관인들께 증정한다. 본 전시회는 이영남 권사가 조직위원장으로 섬기는 행사이다. 입장권은 교회 사무실이나 본관 로비에 비치할 예정이므로 관심있는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 교회번식 진행계획과 기도회 일정 >

모임	월/일	비고
첫 번째	9/25	첫 기도회 - 주님의교회 소예배실
두 번째	10/2	번식교회 담임(이인호목사) 발표, 주일예배 시 영상광고, 번식위원회 모임
세 번째	9	성백술장로, 번식추진위원장(수리책임) 위촉, 이인호목사, 기도회 인도, 번식교회 수리 설계도
네 번째	16	번식주일 플래카드 부착, 번식교회 수리 시작, 함줄함울에 교회이름, 담당목회자 프로필 등 게재
다섯 번째	23	현장주변 답사 및 파악(동사무소, 시청&당 밝기), 함줄함울에 목회비전 게재
여섯 번째	30	함줄함울에 길가에교회 주변 소개 인터넷 홈페이지 만들
일곱 번째	11/6	"교회번식 주일" (영상: 수리진척상황 등), 이후, 남양주에서 기도회 가짐(봉고운행예정)
여덟 번째	13	이웃교회 방문, 인사, 교육전도사 선임
아홉 번째	20	기도회, 땅 밟기
열 번째	27	기도회, 땅 밟기
열한 번째	12/4	길가에교회 수리완료
파송식 창립예배	11	주님의교회 주일예배 시 길가에교회에서 오후5시

함줄함울 문예지 발간 예정

매주일 나오는 함줄함울에 다 신지 못하는 성도들의 간증, 수필, 시 등을 모아 함줄함울 문예지 별책을 만들려 합니다. 글을 내 주실 성도는 4층 교역자실 간사에게 교구구역과 이름, 연락처와 원고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원고는 E-MAIL로 주시면 편집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예지 발간은 글이 모이는 대로 11월 추수감사주일이나 12월경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1면에 이어서)

번식교회 이름

“길가에교회(Gilgaeh Church)”로

길가에교회 담임 이인호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 신학과(ThB)와 동 대학 신대원(MDiv)에 이어 주님의교회 개척초기부터 6년 동안 부교역자로 섬기다

6여선교회 ‘소망의 집’ 목욕봉사 다녀와

6여선교회는 나현수 전도사와 함께 지난 월요일(10일) ‘소망의 집’으로 목욕봉사를 다녀왔다.

6여선교회는 매달 둘째 주 월요일 아침마다 마천동 소재 ‘소망의 집’으로 목욕 봉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는 두 돌이 된 아기부터 청소년, 청년까지 있다. 목욕 시키는 조와 옷을 입히는 조, 점심 준비 조로 역할을 나누어 각각 욕실, 거실, 주방에서 봉사의 손길을 바쁘게 움직였다.

아이들 중에는 병으로 아파하다가 하늘나라로 먼저 간 아이들도 있었고, 집으로 보내진 아이들도 있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아이들이 보고 싶었지만 더 좋은 곳으로 갔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

현재 ‘소망의 집’은 몇몇 단체와 개인의 후원으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 6여선교회 봉사의 현장에 동참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환영한다.

가 영국버밍엄대학 목회상담학석사(MA)와 동 대학 목회리더십박사(PhD) 학위취득 후 다시 주님의교회 부목사로 일해 왔습니다.

가족으로는 부인 임승희님과 두 아들 세록(고3)과 예록(고2)이 있습니다.

저서로는 창작찬양곡집, 『오 주님 나의 주』와 박사논문 『한국 목회리더십에 있어서 권위』 그리고 『위기의 리더십』(집필 중) 등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기뻐하며,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고, 우리가 서로를 축하해줄 수 있게 해주세요...

2005. 10. 16

간증기고문

PTP에서 받은 은혜



먼저 PTP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봄 학기 동안 PTP를 통해 많은 도전과 부모의 역할을 깨닫게 되어 기도하며 의지할 수 있었다. 이전에는 아이들에 관한 모든 것을 세상적인 눈높이로 바라보고, 세상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나의 생각을 반영하며 내 생각에 어긋나는 것에 안타까워

하고 아이들에게는 그래도 최대한 너희들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왜 너희는 너희 뜻대로만 하려고 하니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또 모든 것을 나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최선을 다해 보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다.

PTP에 참여하며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녀를 키우며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과 자녀는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는가, 그러나 기다림에 축복이 있고, 우리 마음대로 절대로 안 되는데 축복이 있다는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 인생이 값진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가장 기뻐하시기에 주님을 알기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갖고 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영적인 눈으로 아이를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이가 되도록 기도하는 길 밖에 우리가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녀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는 인내함이라 역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밖에 없다는 사실에 고개 숙인다.

뜻을 같이 하는 부모들이 점점 늘어나고 기도의 자리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새로이 가을학기부터는 자녀의 학년에 맞추어 소그룹을 만들어 기도제목도 나누며 정보 교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접할 수 있어서 더욱 더 기대가 된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과 열정적으로 인도하시는 홍민기 목사님을 비롯한 전도사님들, 커피의 향으로 후각을 통해 오감을 준비시키고 마친 후 교제를 즐겁게 하라고 간식까지 준비해주시는 봉사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전숙정 집사 -

지난 토요일 오후, 영어예배 community celebration 가져



지난 토요일(8일) 영어예배 공동체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5층 중보기도실에서 17명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축복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

제의 시간을 가졌다. 저녁식사는 성도 몇 명이 하루 종일 수고해 이탈리아 테마로 Linguine 파스타에 다 Meat sauce 와 Seafood sauce, Baked chicken, 마늘빵, Salad등을 풍성하게 함께 나누었다. 이 시간을 통해 영어예배 공동체가 서로 더 친해지고 따뜻한 소그룹이 되어 감을 느꼈다. 지난 3월 첫 번째 영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이래, 우리 교회 영어예배에 충만하게 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 표현

하지 못할 정도다. 매 주일 예배 때마다 홍민기 목사님과 나현수 전도사의 설교말씀을 통해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특히 찬양 드릴 때마다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느끼게 된다. 예배 전에 갖는 15분 동안의 기도시간을 통해 영어 예배는 더욱더 은혜로 충만케 됨을 절실히 느낀다. 또한 주일 11시 30분부터 시작하는 영어성경공부(현재 사도행전 공부) 시간에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은혜로 함께하고 계신다. 한편 매주 화요일 오후 5시까지 서로 업데이트한 기도 제목을 놓고 1주일간 서로를 위해 뜨겁게 중보기도하고 있다.

5여선교회 월례회 가져



지난 수요일(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5층 청년부 2실에서 5여선교회 월례

회가 있었다. 회장 이일금 집사의 인도 아래 로마서 8장 1-17절 말씀을 회원들과 함께 읽고 나누며 나라를 위한 교회를 위한 회원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주에는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봉사하고 있는 살롬의 집을 방문할 예정이다. 5여선교회에 속하는 모든 성도들과 봉사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을 함께 초청한다.

[교회 처음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교회생활을 안내합니다

1. 주일 점심 식사 안내

매주일 식당(지하 1층)에 오시면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국수대금(500원)은 구제에 쓰입니다. 잊지 마세요.

2. 주차 안내

주일 아침 1부 예배 시작(7시 30분)부터 3부 예배 마칠 때(12시 30분)까지 주차 안내 위원들이 주차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선여중고 운동장을 주일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천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는 탄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오후 1시 이후에는 유소년축구클럽 관계로 이동주차하여 주십시오.

3. 도서실(5층) 안내

5층에는 도서실이 있습니다. 3000권의 신앙서적과 30여명이 동시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관시간은 주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평일은 (월요일 휴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입니다. 토요일은 어와나 끝나는 시간(5-6시)까지 개관합니다.

도서검색 및 구입요청 : [cafe.daum.net / PCLBOOKS](http://cafe.daum.net/PCLBOOKS)

4. 설만한 물가(1층) 이용안내

1층 로비에는 성도들이 차를 마시며 교제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교실이 있습니다. 신앙서적, 주일설교테이프, 그리고 맛있는 차와 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토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교회에서 처음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와 자녀들의 교회학교 모임과 식당 및 주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주일 예배

예배	시간	장소
1부 예배	오전 7시 30분 ~ 8시 30분	2층 대예배실
2부 예배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2층 대예배실
3부 예배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	2층 대예배실
4부 전도예배	오후 2시 ~ 3시	2층 대예배실

주중 정기 모임

예배	시간	장소
새벽기도회	새벽 5시 30분 ~ 6시	1층 소예배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 8시 30분	지하1층 중예배실
목요모임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지하1층 중예배실
구역모임	방학	방학

교회학교 예배 및 모임

자녀와 함께 오신 부모님은 자녀의 연령과 모임장소를 확인하여 자녀를 교회학교에 맡기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부서	시간	장소	대상
영아부	11:30-12:30	영아부실(지하 1층)	생후~24개월
유아부	11:30-12:30	유아부실(1층)	25개월~48개월(4~5세)
썩트네(통합유아부)	09:30-10:30	유아부실(1층)	학령기전(7세이하)
유치부	11:30-12:30	유치부실(지하 1층)	49개월~학령기전(6~7세)
유년부	11:30-12:30	유년부실(1층)	초등 1~2학년
초등부	11:30-12:30	초등부실(3층)	초등 3~4학년
소년부	11:30-12:30	소년부실(3층)	초등 5~6학년
레인보우(통합아동부)	09:30-10:30	유년부실(1층)	초등 1~6학년
중등부	09:30-10:30	소예배실(1층)	중학생
고등부	09:30-10:30	중예배실(지하 1층)	고등학생